

대기업 '글로벌 인재' 현지 채용

SK·포스코·동부등 '미주 코리언 취업박람회' 대거 참가

SK그룹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석·박사 및 경영학석사(MBA) 등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인재기획(대표 김성민)의 미주법인인 '잡월드USA사업부'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본사가 위치한 뉴저지의 '티백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1회 미주 글로벌 코리언 취업박람회'에 포스코, SK그룹, 동부그룹, 웅진그룹, 삼양사, 미래에셋, 한국타이어, 한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현지서 유학생 및 현지동포 대상으로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각 주에서 거주 중인 한국 유학생들을 비롯해 재미동포 1.5세, 2세대들 1500여명이 참

가했으며, 상당수가 석·박사 및 MBA를 취득한 고급 인재들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커피, 체이스뱅크, 커머스뱅크 등 미국 내 주요 기업들도 참가했다. 포스코·SK텔레콤 등 이날 취업박람회 참가한 국내 기업들은 10명에서 20명 정도씩 우수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인재들을 한자리에서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채용관과 미국 채용관으로 운영, 한국채용관에서는 한국본토에서 기업들이 참가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및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현장인터뷰 및

취업상담을 했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미국채용관을 이용해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미국 기업들에 입사지원 및 현장 약식인턴 기회 등을 기졌다.

이 행사를 주관한 제일인재기획측은 취업비자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은 현장 전문 취업비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으며 회사소속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들의 커리어 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법 등을 지원했다.

국내 기업들은 연중 수시로 이처럼 해외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올 상반기 비즈니스 & 캠퍼스(BC) 투어 일환으로 김반석 사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MBA 6명을

채용했다. LG화학은 지난 2005년부터 BC투어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 연초부터 이달 현재까지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글로벌 인재 150여명을 채용했다. 최근 잇단 수주행진으로 늘어난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 등 전문인력을 대거 확보한 것이다.

김성민 대표는 "미국에서 글로벌 코리언 전문 대형 취업박람회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한인 인재에게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고 참가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중국 상하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취업박람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 | 차석록기자